

● 전국도서관인큰모임 제1주제

國家發展과 圖書館

玄 勝 鍾
(한림대학교 총장)

1. 머리말

'88년 서울올림픽때에 “하나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과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라는 표어가 나붙은 것을 나는 흥미롭게 받아들였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국가발전의 목표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 그것은 동시에 냉전종식 이후의 국제질서를 예언해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지금 세계는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말한 「역사의 종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의 대립에서 공산주의의 패배로 귀착되면서 ‘지구촌’이라는 말로 적절히 표현되고 있듯이, 영토와 국경의 개념을 뛰어넘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경향의 일면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세계는 신질서의 모색을 위한 진통을 겪고 있다. 민족의식의 발양에 따른 소련에서의 연방독립의 열망에서 볼 수 있듯이 민족이나 국가를 단위로 하는 ‘분열’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는 우선 경제면에서 나아가서는 국제정치면에서 몇개의 블록으로 ‘통합’의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욕심을 말한다면 우리 나라가 그와 같은 국제사회의 조류에서 건인자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발전은 힘차게 추구되어야 한다.

그러면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발전을 끌고 갈 주체로서의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할 객체로서의 자연자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필요불가결한 것은 인적자원이다. 물적자원은 그것이 풍부할수록 국가발전을 그만큼 용이하게 할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부족하거나 전무하다 하더라도 인적자원의 자질과 능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임은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국가발전에 있어서의 인적자원이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성과 인격 따라서 교양을 지니는 동시에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두말할 것 없이 그것은 모든 종류의 교육과 도서관을 통하여서 라고 하여 잘못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교육도 도서관의 힘을 빌려서야만 가능한 것이고 보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의 핵심은 도서관에 있다고 하여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국가발전상의 인적자원

국가발전에 있어서의 주체로서의 인적자원을 생각할 때 흔히들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적 지식이 없이는 국가발전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전문적 지식을 가지기에 앞서서 교양인이 되어야 전문적 지식을 국가발전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문학과 예술을 비롯하여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 관한 일반적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종극적으로는 모든 인간사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인 철학을 나름대로 지님으로써 문화적 시야의 폭을 넓히고 고도의 윤리적 판단력을 지니게 되어, 전문적 지식의 깊이를 더하게 되며, 국가를 모든 면에서 수준 높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전근대적인 사회에서는 주로 교양만으로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풍부한 교양만으로 국가를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고도로 발전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각 분야에 걸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제가 필요하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후기산업사회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국가발전의 주체로서의 인적자원에 요구되는 교양과 지식은 교육과 도서관을 통하여서 얻게 된다.

두말할 것 없이 인간은 시간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간이 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밀도 없이 시작하여 끝도 없이 계속되는 영겁의 시간 속에서 극히 미세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류의 문화생활이 시작된 이래로 선인들이 사유와 경험을 통하여 얻은 고귀한 창조적 지혜를 기록으로 남겨 놓았기에, 그것에 접함으로써 우리의 지식을 시간적으로 수천년래의 과거에 까지 소급하여 확장할 수 있으며, 그만큼 우리는 짧은 시간을 살면서도 기록을 통하여 긴 역사 속에 형성되고 축적된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공간 속에서 살고 있다. 요즈음 교통시설과 통신수단의 엄청난 발달로 말미암아 인간이 누리는 공간의 폭은 놀랄만큼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도처에서 제작되는 다양한 기록을 통하여 그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폭넓게 확대할 수 있다. 이리하여 국가발전의 역군으로서의 인간은 자신이 처해 있는 한정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을 터득함으로써 국가발전에 필요한 정신자원을 획득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발전에 중요한 자원을 제공해 주는 각종의 기록, 그것은 문자화된 도서이건 필름·음반·비디오물 등 시청각 자료이건 모두 도서관에서 수집하여 보관하고 국민에게 이용시켜 준다. 따라서 국가발전에 필요한 정신적 자원은 도서관을 통하여 사람에게 전달되게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도서관은 다른 어떤 시설이나 기관보다도 국가발전의 원천을 이루는 시설이라고 하여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3. 후기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도서관

우리는 지금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는 노동집약적사회에 출발하여 기술집약적사회를 거쳐 지식집약적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말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고찰하면 폭력이나 무력과 같은 물리력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시작하여 경제력이 지배하는 사회를 거쳐 지식력이 지배하는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후기산업사회에 있어서는 국력의 기준은 지식과 정보의 소유량과 활용도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한다. 우리 나라가 일찍이 중진국에 들어서서 그 선두를 달리고 있으면서도 선진국으로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따지

고 보면 지식 특히 그 가운데서도 과학과 기술에 관한 독자적 지식을 거의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다는데 연유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와같이 지식력이 지배하는 후기산업사회는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후기산업사회는 정보사회이다. 이 특징은 지식지배사회라는 표현과 표리를 이루는 것이다. 통신기술과 정보처리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하나의 새로운 산업사회라는 뜻이다. 산업사회는 하드웨어적 시설의 거대한 조직화가 특색인데 비하여, 정보사회는 소프트웨어적 아이디어에 의한 최소규모의 조직화가 특색이다. 산업사회에서는 규모의 크기가 자량이요 선망의 대상이지만,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소규모의 엘리트집단이 이상이요 선망의 대상이 된다. 우리는 이 정보사회의 특징을 지난번의 걸프전쟁에서 여실히 볼 수 있었다.

둘째로 후기산업사회는 다양화와 다원화의 사회이다. 후기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세분화와 고도화는 개성을 강조하는 민주화와 더불어 다양화의 사회를 이룬다. 한 나라 안에서도 그렇지만, 국제사회는 이념·체제·종교 등 문화와 경제발전의 수준을 달리하는 여러 국민과 민족들이 밀접한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다원성을 지니게 된다.

셋째로 후기산업사회는 고속적변화의 사회이다. 후기산업사회는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하였거니와, 그 지식 중에서도 특히 과학과 기술은 역사상의 어느사회에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눈부신 속도로 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전자오락실에서의 유희는 어느덧 걸프전쟁에서의 실황으로 우리의 눈 앞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의 고속적 발달은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인간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도 변화가 생긴다.

넷째로 후기산업사회는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이다. 이것을 지구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통신기술과 교통수단이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발달을 이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간적 거리는 시간적으로 압축되었으며, 우리의 활동무대는 공간적으로 무한히 넓어지고 있다. 국경과 영토의 개념은 다분히 모호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역시 걸프전쟁에서 체감하였다. 걸프지역에서의 전쟁의 실황이 그것이 전개되는 같은 순간에 우리의 안방에 방영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거리는 말살되다시피 하였던 것이다.

후기산업사회의 이와같은 특징은 국가발전에 있어서의 도서관의 있어야 할 모습과 운영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4. 도서관의 역할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보고이다. 국가발전에 있어서의 정신자원은 도서관을 통하여서 제공되며 획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가발전에 있어서의 인적자원은 교육을 통하여서 양성된다고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교육도 도서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교과서는 개인이 구독한다치더라도, 그밖의 방대한 양의 참고서며, 실험실습에 필요한 각종의 지침서, 그리고 시청각자료 등은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사회교육 내지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도서관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의 정보원이요,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보관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지식정보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왔지만 현대후기 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는 “과학기술정보의 신속한 공급은 물론, 개인의 지적활동과 문화향수 및 여가선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서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자극시키는 사회문화적 교육기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관은 그것이 공공도서관이건 학교나 기타의 특수도서관이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자체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잘못이 아니리라고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도서관은 이용자 자신 소유의 도서를 가지고 공부하기 위하여 좌석을 빌려쓰는 말하자면 독서실·자습실의 구실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빌려서 지식과 정보를 얻는 데 이용함으로써,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살리는 국민은 그 수가 얼마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도서관의 실정이었다고 보여진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도서관은 일반시민생활에서 소외된 시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도서관이 시민으로부터 유리되어 있었던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즉, 우선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경제성장에만 총력을 경주하고, 교육과 문화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는 소홀하였음이 사실이며, 따라서 도서관에 관하여는 그 중요성을 인정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 첫째의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둘째로는 국민의 인식이 도서관에 접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학교에서는 심지어 대학에서 마저도 학생들이 도서관 소장의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학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일반사회에서는 도서관의 이용을 필요로 할 정도의 욕구를 유발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과학과 기술에 관하여서도 독자적 개발은 오히려 시간과 정력과 비용의 낭비요, 안이하게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사용료를 지불하고 빌려다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근시안적인 사고가 기업계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읽고 싶은 책은 개인이 자기 돈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타성적으로 우리의 독서계를 지배해 왔던 것도, 일반국민이 도서관을 찾지 않는 이유의 하나가 될 것이다.

5. 도서관의 활성화

i) 정부의 정책적 배려

도서관은 국민의 지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국가의 기반시설이며, 특히 정보사회로 일컬어지는 현대의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사회의 다양화·다원화와 고숙적 변화 및 지구촌으로서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신속하고 다양하며 광범하게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 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낙오자를 면하지 못함은 불을 보듯 명백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부족으로 정책적 배려를 소홀히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인구 18만명에 1개관 꼴밖에 안되며(미국은 27,000명당, 일본은 76,000명당, 영국은 24,400명당 1개관), 전국의 공공도서관 중 법정기준에 달하는 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은 전체의 25%에 불과하여, 인구 1인당 평균 장서수도 0.14권으로서 선진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이며, 말레이시아의 0.21권, 페류의 0.28권의 절반에 미치는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후기산업사회의 특수성을 고려에 넣을 필요도 없이, 국민의 지적활동·문화활동·여가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육성 발전정책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계제에 도달하였다. 독자적인 과학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선진국의 대열에 끼어야 한다는 장기적이며 원대한 시각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국민의 문화적 수준의 차원에서도 그래야 한다.

만시지탄이 없지는 않으나, 지난해초 정부는 21세기의 문화복지사회를 이루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문화부를 신설하고, 도서관행정을 문화정책차원에서 새롭게 검토함으로써, 도서관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음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짝이 없는 일이다. 즉 도서관업무의 문화부 이관을 골자로 하는 「도서관진흥법(법률 제4352호)」을 금년에 새로 제정 공포함으로써 도서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도서관 봉사를 규정하는 한편, 지역별 문화시설과도 협력하여 그 지역 주민을 위한 다목적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그 입법정신에 합치하도록 실천에 옮겨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ii) 도서관에의 유인노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도서관은 다분히 독서실의 구실을 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의 도서관은 이용자를 유인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이용자가 즐겨찾는 도서관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만을 제시한다면 첫째로 각종의 지식과 정보에 관한 자료를 부족함이 없도록 풍부히 수집 보존하여야 한다. 또 장서와 열람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공공도서관 중에서 건물의 면적이 법정기준을 유지하는 도서관은 25%에 불과하며, 법정 열람 좌석 수를 갖춘 도서관도 63%에 지나지 않는 상태는 하루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

둘째로 도서관은 사회교육의 장이 되도록 서예·교양강좌·꽃꽂이강좌·주부교실·독서클럽 등 각종 프로그램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도서관을 음악감상실·공연장·전시실 등 복합적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고, 인쇄자료 이외에 음반·비디오·필름·슬라이드 등을 포함하는 종합영상자료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족보 등 문중자료·향토 및 생활자료를 구비하여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 공간화를 기하여야 한다.

세째로 공공도서관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관과 이동도서관 및 대출문고를 설치하여 도서관의 봉사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네째로 도서관은 사서직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사서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사서를 양성하여, 자료이용자의 훌륭한 안내자가 되게 함으로써 사서본래의 중요한 기능을 활성화하기에 힘써야 한다. 컴퓨터의 발달은 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임을 불문가지의 일이다.

6. 맺는말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복지사회와 문화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안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날까지의 인류사회의 경험과 이론에 비추어 그것이 아직까지는 인류에게 최대의 행복을 안겨주는 이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그 길에 첫발을 내딛었을 뿐 아직 그것의 실현은 전도요원한 일이다. 수준낮은 우리의 정치는 민주주의의 미명 하에 혼미를 거듭하고 있으며, 경제는 제법 성장하였다고는 하나 아직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발전과 분배의 몸부림속에서 사회의 복지는 각종 욕구불만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이와 발맞추어 국민의 문화생활이나 문화활동 역시 걸음마의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지구촌시대를 이루면서도 통합과 분열의 복잡한 양상을 노정하고 있다. 하나의 국제사회를 이루어 상호의존적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지역적 블록화가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국가별 민족별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의 도를 더해가고 있다.

후기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나라가 살아 남아서 우리의 이상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국민전반의 문화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창출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가정교육에서부터 출발하여 유아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 내지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학교나 기업체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각종의 연구소를 개설하여 지식과 정보의 흡수와 개발에 많은 정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행위나 연구활동도 따지고 보면 지식과 정보의 제공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고 보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이야말로 국가발전의 원천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실 도서관은 역사상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사회발전 내지 국가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지만, 더군다나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서서는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효과가 당장 눈 앞에 나타나는 분야에만 투자하려는 근시안적인 정책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에도 눈을 돌려 먼 장래를 내다볼 줄 아는 시각과 슬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더우기 우리의 경제는 빠듯하지만, 국가의 미래상을 구상할 줄 아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아니 지식과 정보의 제공은 근시안적인 입장에서도 당장에 국가발전에 직결되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에서 정부는 도서관에 관하여 심하게는 하나의 장식물로 생각하던 종전의 타성을 탈피하고, 과감한 배려를 정책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뿐 아니라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지식과 정보의 혜택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사회단체에서도, 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는 데 많은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편 도서관 자체로서는 국가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체 위치를 새삼 인식하고, 각종 지식과 정보를 담은 자료의 수집과 제공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도서관을 사회교육과 문화활동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에 힘써으로써 국민이 즐겨 찾는 시설로 만들어지도록 적극적 능동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을 학생이나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는 소수의 특수한 사람이나 찾아가는 곳으로 치부하던 종래의 인식을 버리고, 일상생활에서 부담없이 즐겁게 찾아가 문화생활에 윤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으로 친근감을 가지는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